

수요자 맞춤형 연구윤리 정기교육(2차)

참가안내문

2026

교육목표



- 연구부정행위의 이해와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배양한다.
-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발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이해한다.

과정개요



[대상] 대학,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관리자 대상
[기간] 2026. 4. 2.(목) (3H)
[장소] 실시간 온라인(ZOOM)
[비용] 무료
[주관]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

교육신청 및 취소



신청 및 취소기간: ~3. 27.(금)

교육수료



- 교육시간의 참석률 80% 이상, 설문조사 완료 시 수료, 80% 미만 시 자동 미수료 처리됩니다.
- 교육만족도 설문조사는 교육종료 후, SMS를 통해 발송됩니다.
- 교육기간 중 불참 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자와 사전 협의 바랍니다.(허가원 작성 必)
- 수료증은 교육종료 후 KIRD 알파캠퍼스(<https://alpha-campus.kr>) 로그인-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.
- 본 교육과정은 ①교육부 학술·연구지원사업과 ②과기부 과학기술 연구사업 과제 참여자(연구책임자, 공동연구원) 대상 연구윤리 의무교육 이수로 인정됨 (단, 알파캠퍼스 회원가입 시 연구자등록번호 반드시 입력 필요)

문의처



[교육내용 및 신청] 정서연 043-251-7073 syjung@kird.re.kr

시간표

일자	시간		내용	관련 역량
4. 2 (목)	13:30~14:00	30분	등록 및 오리엔테이션	
	14:00~15:30	90분	[연구수행 중의 연구윤리] • 연구윤리의 필요성 • 연구부정행위 : 사례 중심으로 • 부당한 저자 표시 및 중복게재 : 사례 중심으로 •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	• Professional Ethics • 윤리 준수 모니터링 • 법령/규정/제도 위반사례 학습
	15:30~16:00	30분	설문 및 교육 종료	

※ 상기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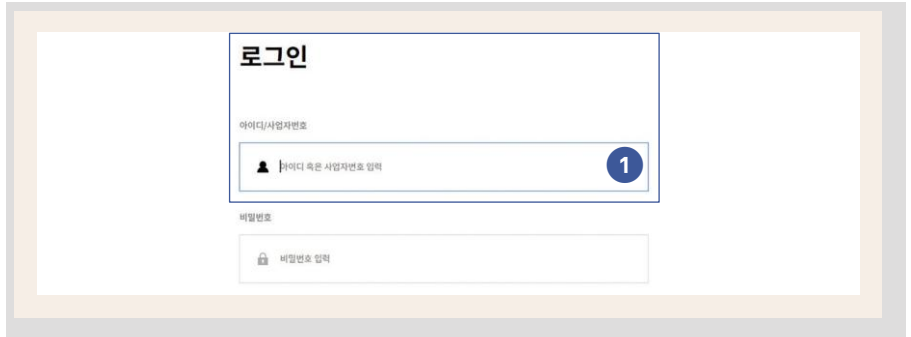
KIRD

수강신청

1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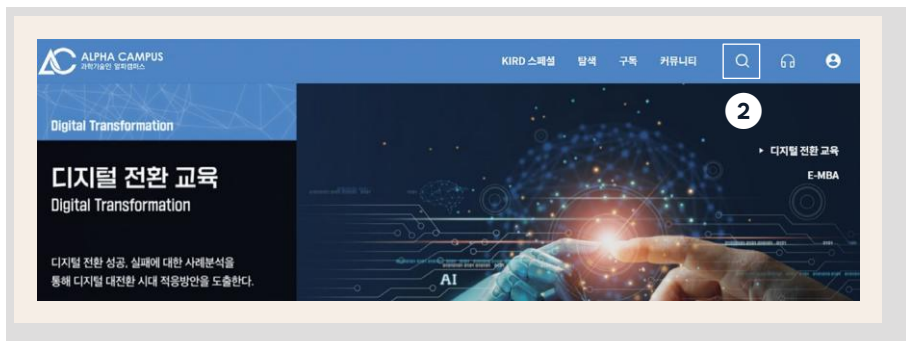
www.alpha-campus.kr
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



2.



'교육과정' 검색
(ex. 맞춤형 연구윤리)



3.



희망 '교육과정' 클릭



4.



'수강신청' 클릭



수강신청

- 웹캠이 있는 컴퓨터(노트북/스마트폰 등) 및 이어폰 (이어셋, 헤드셋) 준비



- ※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KIRD 운영진 안내에 따라 교육 전 테스트 진행
- 접속 문제 발생 시, KIRD 운영진 및 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

유의사항

- 교육 전 공유된 강의 자료를 수강생 본인 이외 제3자에게 배포하는 행위 금지
- 온라인 교육 URL을 수강생 이외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금지
- 강의 영상 및 내용을 녹음/녹화/캡처하는 행위 금지

학습자용 저작권 가이드

강의자료 이용 저작권 허용범위

강사의 동영상 등 각종 수업자료는 저작권법으로 보호의 대상입니다.
강의자료를 다운로드하여 **"학습목적"**으로 사용가능 합니다.

저작권 위반한 경우

무단복제, 캡처, 녹화 등 통해 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 3자에게 배포, 전송하는 경우와
동영상, 이미지 등 자료를 외부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경우 등
"학습목적 외"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관련 법률(저작권법)

저작권법 제 136조(벌칙)

지식재산권, 그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배포, 대여,
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
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
초상권 및 개인정보보호 범위

온/오프라인 강의시 학습자를 포함한 녹화, 촬영은 불가합니다.
단, 녹화, 촬영한다는 사실을 **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**에는 허용 가능합니다.

관련 법률(개인정보보호법)

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

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 **"영상물", "이미지"**도 **"개인정보"**에 해당함으로,
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.